

이달의 환율 | 2025. 07

힘 빠진 달러



Research Center

Economist /FX 이주원 joowon.lee2@daishin.com

Daishin 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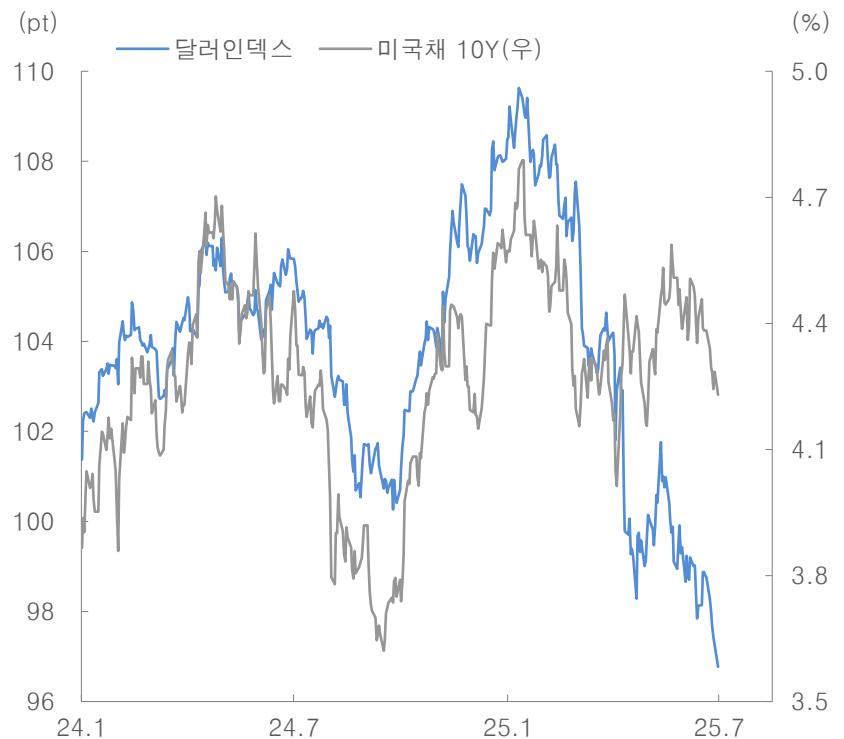
요약



6월 외환시장 리뷰: 달러&미국채 금리 동반 하락

- 6월 중순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등 중동지역 갈등 확대되며 일시적으로 달러가치 반등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지정학 리스크가 우려대비 빠르게 완화되며 달러인덱스는 다시 하락
- 미 연준이 SLR 규제완화를 발표한 가운데, 향후 금리인하 기대 역시 연내 3회로 확대되며 가팔랐던 시중금리 상방압력 완화. 이에 연동되어 달러인덱스도 추가 하락. 달러원 환율도 대외 달러가치 하락을 반영하며 장 중 1,340원대까지 하락

미 시중금리 하락에 연동된 달러



환율보고서, 미 약달러 선호 스탠스 재확인

	2024년 11월	2025년 6월
환율조작국	없음	없음
관찰대상국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 아일랜드, 스위스
한국 관찰대상국 충족 기준	무역흑자, 경상흑자 (흑자 지속 시 구조적 불균형으로 비판 가능성)	11월과 동일
재무부 스탠스 변화	(2024년 11월) 환율 투명성 강조, 중국 비판 불공정 경쟁, 제조업 붕괴, 국가안보 위협 강조 중국에 대해 향후 조작국 지정 가능성 명시, 조작 판단 시 관세 권한 발동 등 보복 가능성 시사	비시장 수단도 평가에 포함할 수 있음을 공식화 - 국부펀드 통한 비공식 환시장 개입 - 공적연기금을 통한 외환 거래 - 자본 통제나 거시건전성 규제를 환율 유도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미국 재무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7월 외환시장 프리뷰: 달러원환율 하향 안정 국면 유효

- 금융시장은 트럼프 협상 방식을 인지하며 경계를 낮추고 있으나, 7/9 무역협상 기한 전후로 트럼프 행보에 따라 통상 관련 불확실성 재부각되며 일시적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경계
-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위험선호 심리 유지될 소지. 대외 달러약세 & 아시아통화 강세 지속 예상. 1) 미국 선수요 마무리에 따른 경기 확장세 둔화 vs. 비미국 내수 중심 경기 저점 통과, 2) 미 환율보고서에서 약달러 선호 스탠스 재확인, 3) 트럼프의 금리인하 압박 지속

향후 3개월 FX 전망

	USD	EUR	JPY	CNY	
Fundamental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수요 마무리에 따른 가계 소비 및 기업투자 수요 공백 불가피 관세 영향 반영 시 재화물가 반등 가능성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 PMI 개선 지속 중이나 실물 지표 반등하는지 모니터링 필요 독일 외 국가들 경기확장 제한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쌀값상승 정점통과한 것으로 보이나 인플레이션 압력 여전 대외 불확실성에 수출은 저조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 회복 지속되고 있으나 디플레이션 우려 여전 관세 공포 정점 통과에 수출 일부 개선될 여지
Polic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 확대 환율보고서에서 미 약달러 선호 스탠스 재확인, 무역협상 과정에 환율관련 논의될 가능성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B 금리인하 마무리 시사 미국과 관세 관련 불확실성 잔존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BOJ 대내외 여건 감안한 신중한 스탠스 지속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환율 논의될 가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 위안화 절상 관련 스몰딜 이뤄질 가능성 5개년 계획 발표 확인 필요(내수 확대+첨단산업 패권 확보 예상)
Sentiment/Trad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7/9 관세유예 종료 전후 통상정책 불확실성 재차 확대될 여지 트럼프 행보에 따른 변동성 확대 경계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대만큼 경기 회복 및 정책 시행이 순조로운지 확인 필요 러우 종전 관련 동향 역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한 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통상 관련 불확실성 여전 (안전선호 심리 자극할 소지)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압력 상존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중 갈등 공포심리 정점 통과 느린 실물지표 개선 속도에 실망감 유입될 경우 위안화 강세 제한
Range	90~105	1.05~1.20	130~150	7.00~7.40	
KRWU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위험선호 심리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외 달러 약세 & 아시아통화 강세 국면 유효한 가운데 달러원 환율 추가 하락 시도 가능 신정부 출범으로 대내 정치 불확실성 또한 해소. 정책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 개선 기대감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러원 환율 하락추세를 뒷받침. 미국과 무역 협상 패키지에 환율 관련 논의 포함될 경우 달러원 환율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향후 3개월 Range: 1,280~1,410원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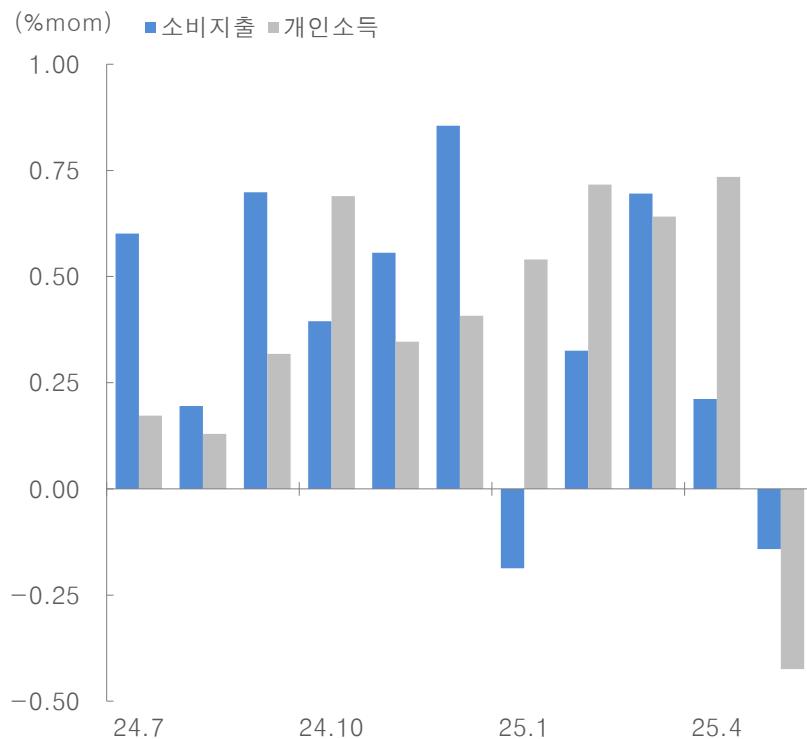
USD: 아직 약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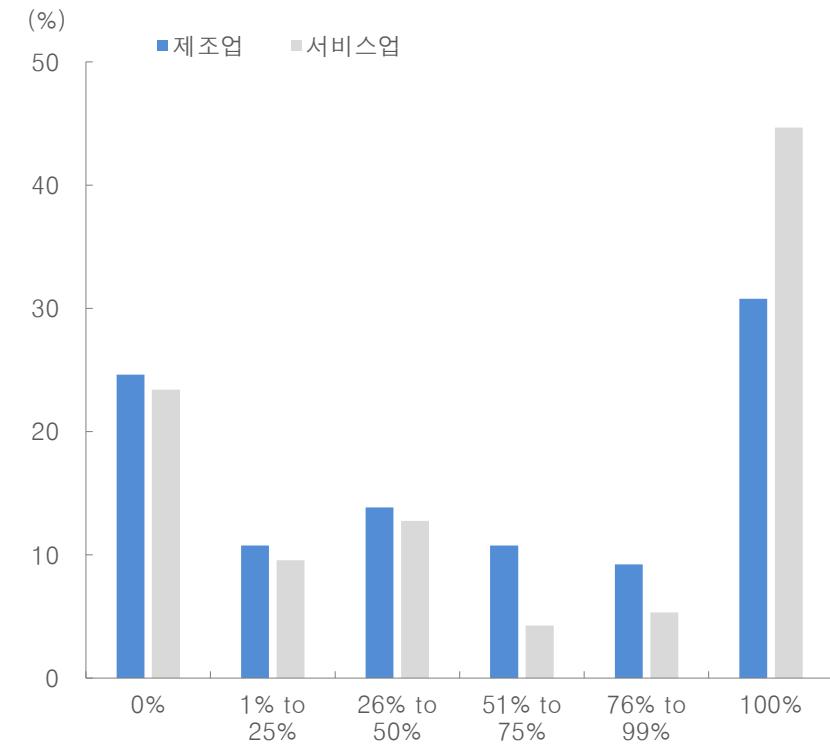
[펀더멘털] 관세 영향 가시화

- 선수요 마무리에 따른 가계 소비 수요 공백 가능성. 5월 PCE 데이터에서 개인소득과 소비지출은 모두 전월대비 감소 전환. 실질소비 증가세가 2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가운데 재화뿐만 아니라 음식/숙박 포함 서비스 소비도 감소 전환
- 한편, 관세에 따른 재화물가 상승 당분간 경계할 필요. 주거비 및 임금상승률 둔화에 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제한적
- 5월 CPI에서 확인했듯 재화가격 반등이 제한적일 경우, 기업들의 판매가격 전가 여력이 충분치 못함을 의미

5월 소득, 소비 감소전환



관세, 가격에 전가 시작(25.5 서베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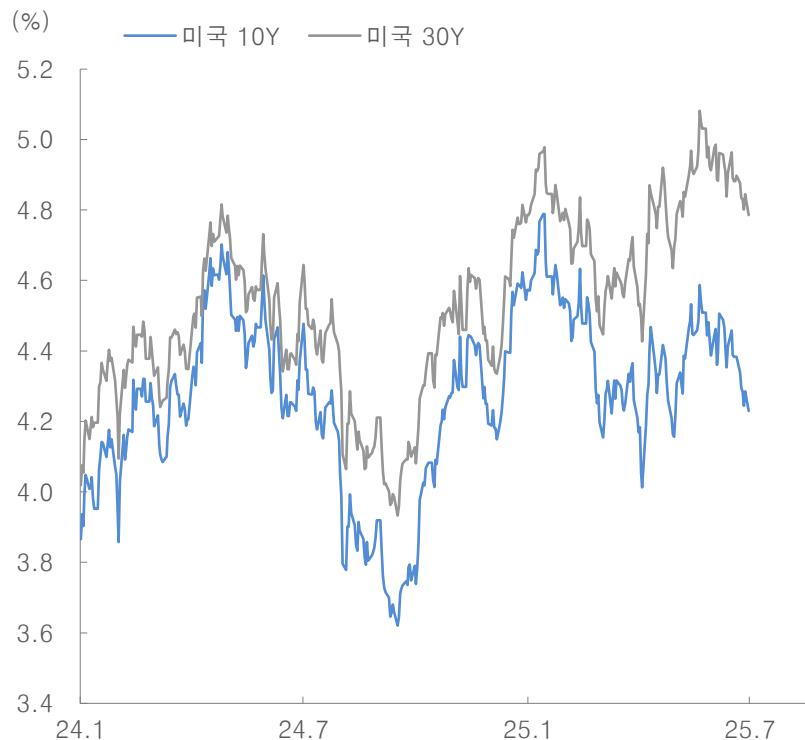
자료: BE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FRB of NY,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정책] 커지는 금리인하 기대

- OBBBA 법안은 상원에서 수정 중이며,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액트'도 상원을 통과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은 점차 해소
- 최근 일부 연준위원들은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파월 역시 과거보다는 완화적으로 해석 가능한 스탠스를 내비춤. 여기에 연준의 SLR 규제완화 소식까지 전해지며 최근 가팔랐던 시중금리 상방압력 완화
- 6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11월 대비 강경해졌으며 현 행정부의 약달러 선호 스탠스 재확인

미국채 금리 상방압력 완화



연내 금리인하 기대감 확대

MEETING DATE	CME FEDWATCH TOOL - CONDITIONAL MEETING PROBABILITIES										
	175-200	200-225	225-250	250-275	275-300	300-325	325-350	350-375	375-400	400-425	425-450
2025-07-30						0.0%	0.0%	0.0%	0.0%	21.7%	78.3%
2025-09-17	0.0%	0.0%	0.0%	0.0%	0.0%	0.0%	0.0%	0.0%	20.3%	74.6%	5.1%
2025-10-29	0.0%	0.0%	0.0%	0.0%	0.0%	0.0%	0.0%	14.3%	58.6%	25.6%	1.5%
2025-12-10	0.0%	0.0%	0.0%	0.0%	0.0%	0.0%	11.5%	49.8%	32.1%	6.3%	0.3%
2026-01-28	0.0%	0.0%	0.0%	0.0%	0.0%	5.7%	30.6%	41.0%	19.3%	3.3%	0.2%
2026-03-18	0.0%	0.0%	0.0%	0.0%	3.4%	20.6%	36.8%	28.0%	9.7%	1.4%	0.1%
2026-04-29	0.0%	0.0%	0.0%	1.1%	9.1%	26.0%	33.9%	21.9%	7.0%	1.0%	0.0%
2026-06-17	0.0%	0.0%	0.6%	5.4%	18.0%	30.2%	27.6%	14.0%	3.8%	0.5%	0.0%
2026-07-29	0.0%	0.2%	2.1%	9.4%	21.9%	29.3%	23.2%	10.7%	2.7%	0.3%	0.0%
2026-09-16	0.1%	0.8%	4.3%	13.2%	24.2%	27.5%	19.4%	8.3%	2.0%	0.2%	0.0%
2026-10-28	0.1%	1.1%	5.1%	14.2%	24.5%	26.8%	18.5%	7.8%	1.8%	0.2%	0.0%
2026-12-09	0.2%	1.4%	5.7%	14.9%	24.6%	26.2%	26.2%	17.7%	7.3%	1.7%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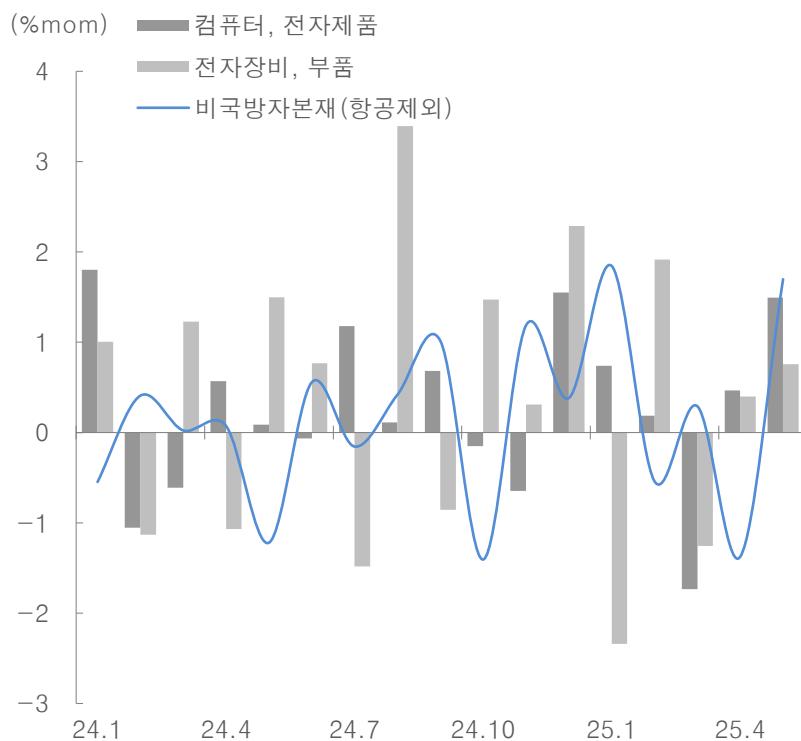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CME Fed Watch,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7/1 기준

[센티/수급] 완만하게 회복할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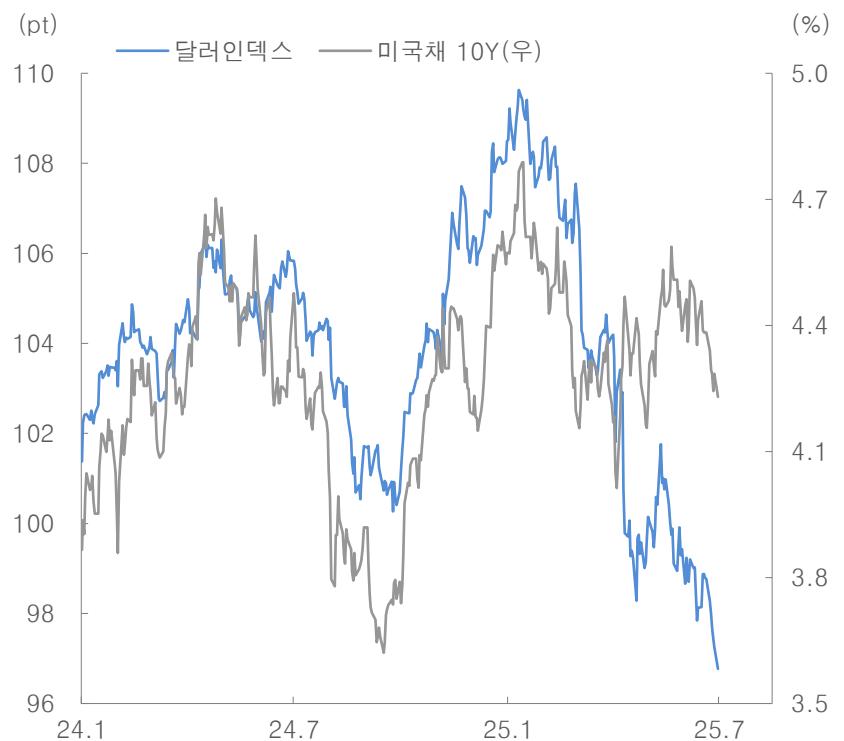
- 트럼프는 7/9 이후 관세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하지 않는 국가들에 관세율 명시한 서한 발송 계획을 밝힘. 발표 전후로 글로벌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불가피
- 한편, 6월 들어 미국채 금리 하락과 함께 달러인덱스도 하락. 최근 약화되었던 미 달러자산에 대한 신뢰 일부 개선되었을 소지
- AI 투자 선행지표 반등. 경제주체들이 정책 불확실성에 무뎌지는 가운데 대미투자 살아날 여지, 이는 달러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전력기기, 부품 주문 증가 추세



자료: BE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약화되었던 미 달러자산에 대한 신뢰 일부 개선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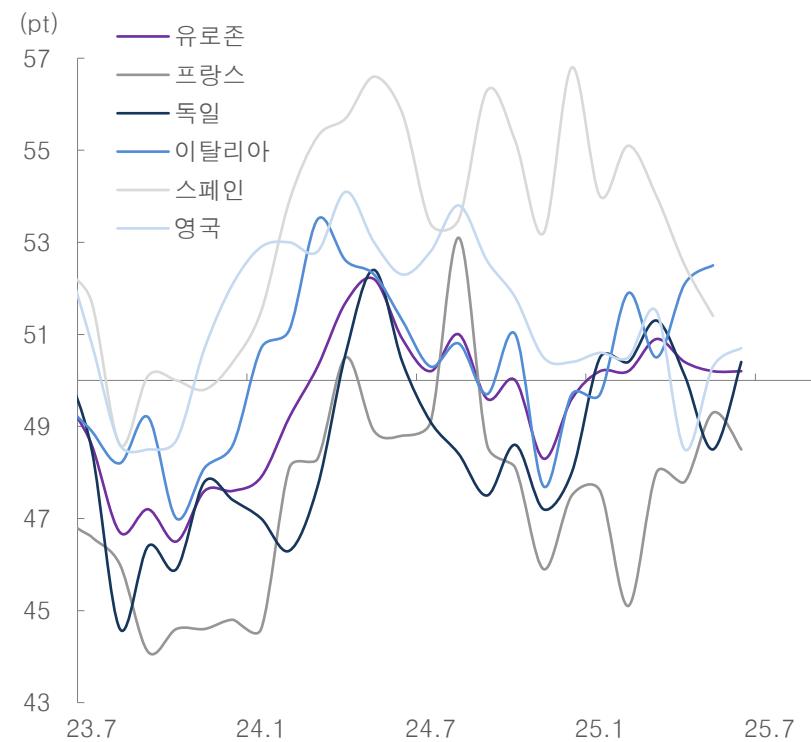
EUR: 아직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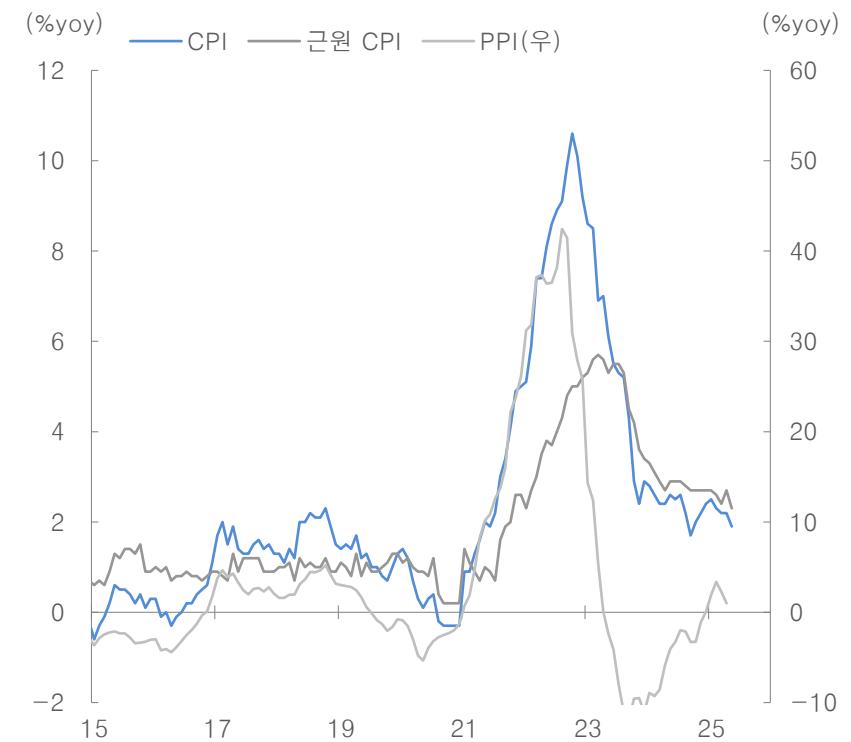
[펀더멘털] 독일이 하드캐리

- 독일 제조업, 서비스업 PMI 상승 vs. 프랑스는 하락.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역시 전월대비 상승. 현재 경영성과는 저조했으나 향후 환경에 대해 낙관적인 분위기 확인. 실물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모니터링 필요
- 6월 물가의 경우 지정학 리스크 확산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컨센서스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표. 중동갈등이 빠르게 마무리되었으며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이 영향을 미쳤을 소지

유로존 국가별 PMI



물가 일시적 반등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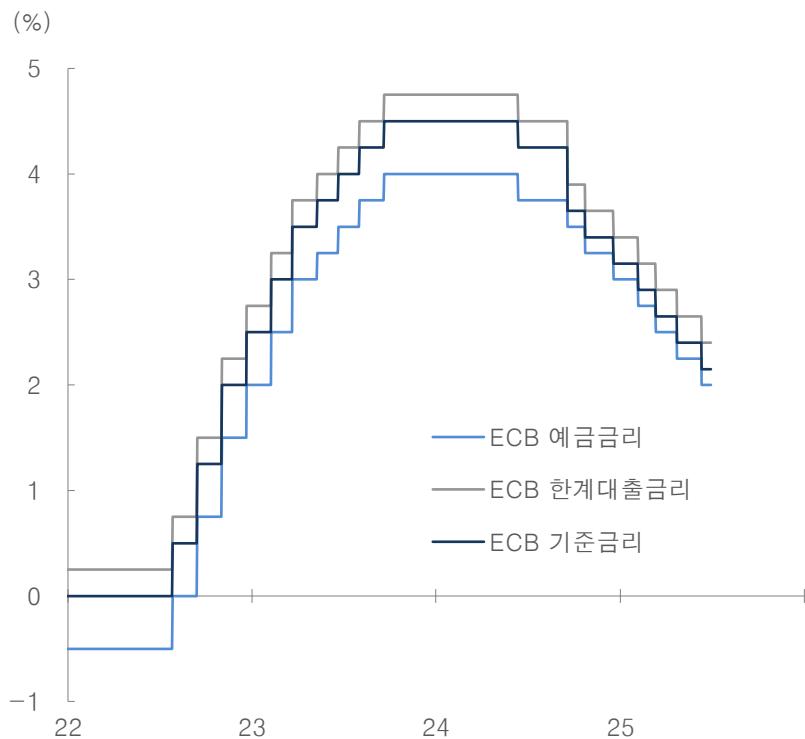
자료: S&P,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Eurosta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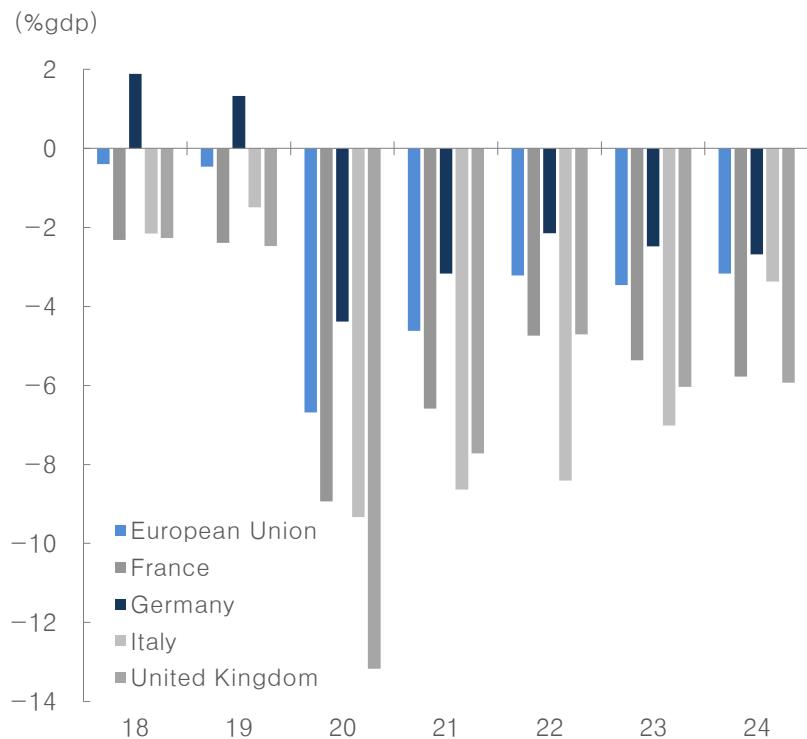
[정책] 금리인하 마무리 시사

- ECB는 6월 회의에서 7회 연속 금리인하 결정,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인하 마무리될 가능성은 시사. 매파적 인하 통화정책 회의 이후 유로존 시중금리 및 유로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음
- NATO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GDP대비 5% 국방비 지출에 대해 합의. 국방비 지출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여타 예산축소나 세금 인상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는 시차 두고 확인 필요

ECB 금리인하 마무리 시사



재정여력도 독일이 양호한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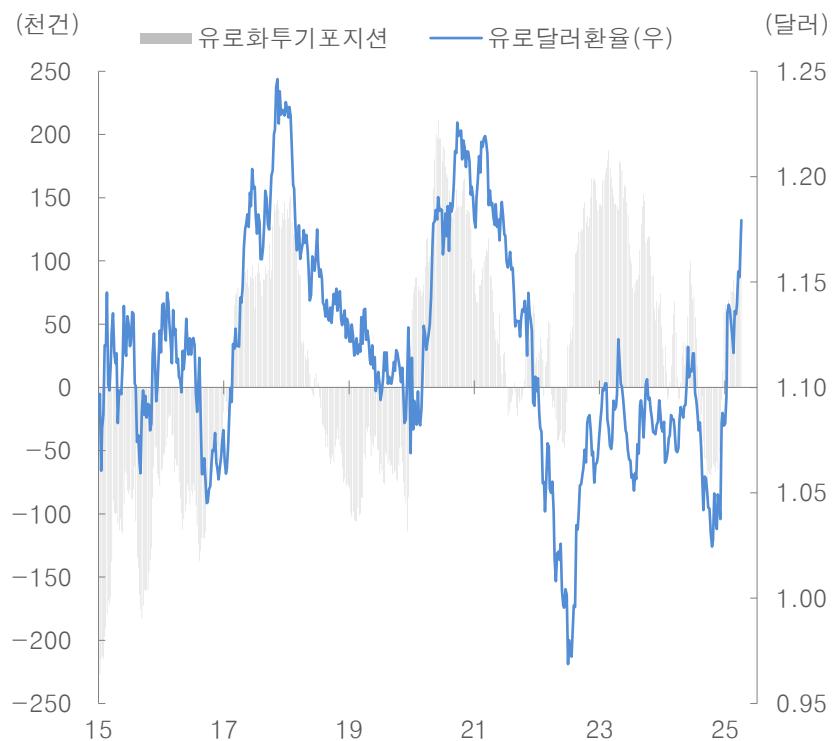
자료: ECB,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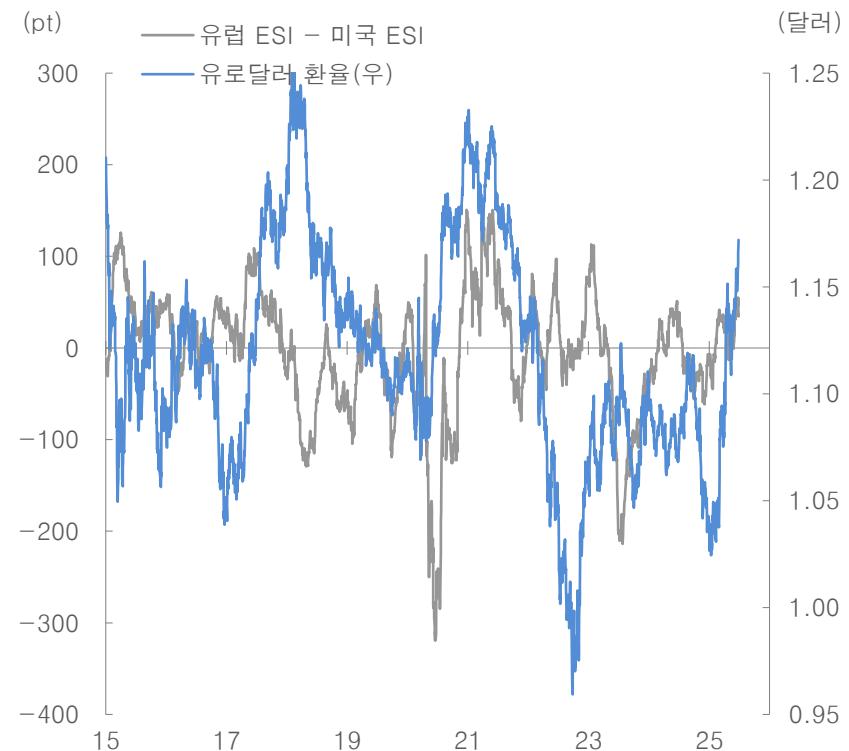
[센티/수급] 높아진 눈높이

- 미 경기 확장세 속도조절 vs. 유로존 독일 중심 경기 개선 지속되며 유로달러 환율 상승추세 유효
- 다만 재정지출 확대나 경기 회복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 최근 ESI 추이 감안할 때, 유로존 경기에 대한 금융시장 눈높이 상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 경기 회복이 기대에 부합하는 속도로 이뤄지는지에 따라 대내 유로화 환율 등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유로화 투기 포지션



최근 유로존 ESI 상승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citi,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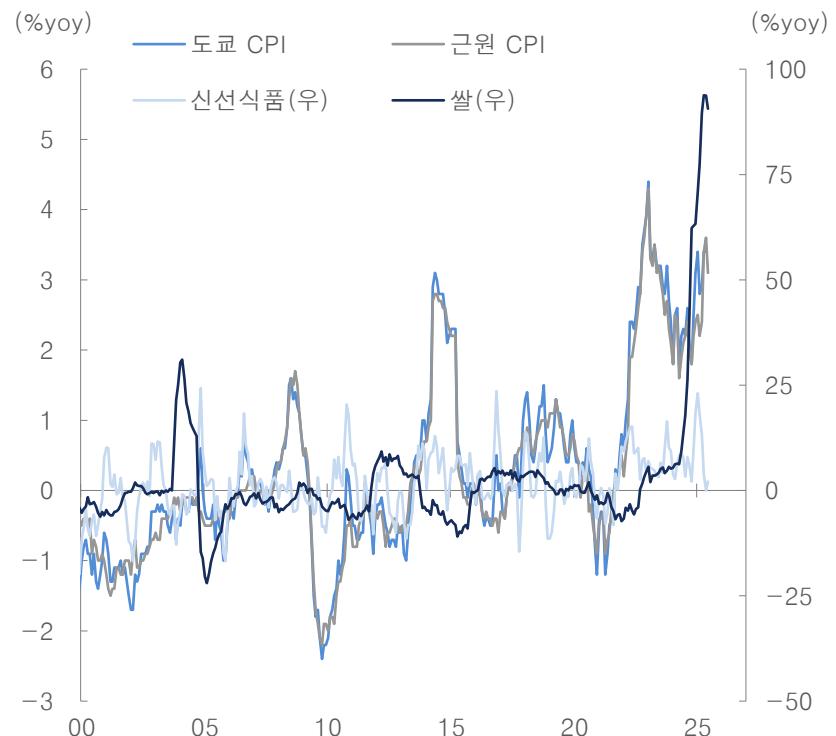
JPY: 유난히 많은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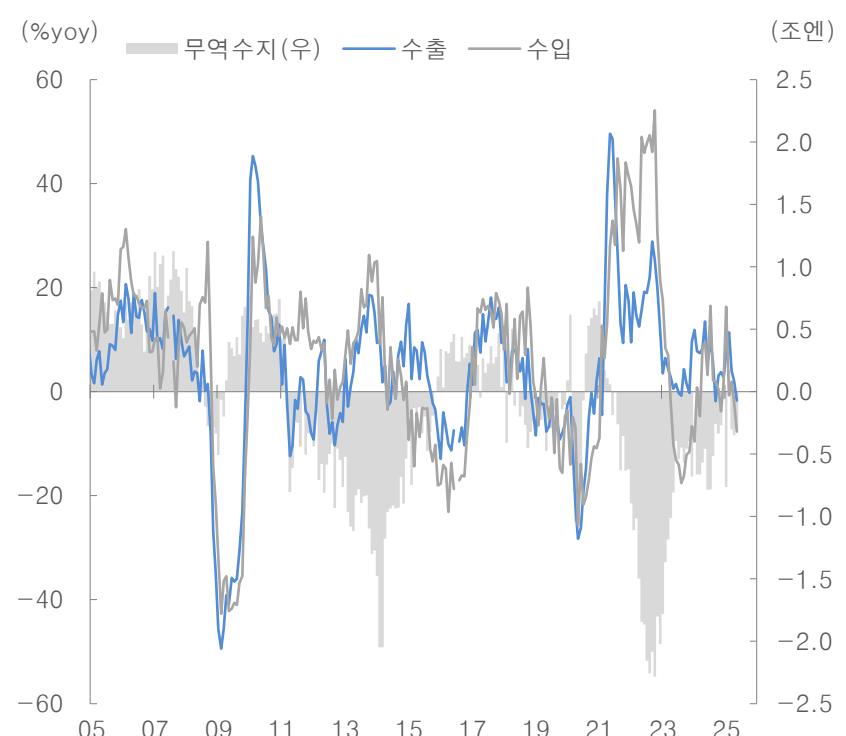
[펀더멘털] 나쁘지는 않지만

- 쌀값 중심 물가압력 여전하나, 에너지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 지속. 농림부의 비축미 방출에도 효과는 제한적이었으나, 도쿄 CPI 기준 쌀값 상승률이 고점은 통과했을 가능성. 에너지 가격 하락 및 달러엔 환율 하향 안정화되는 점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뒷받침
- 6월 PMI에 따르면 민간 제조 및 서비스 기업 활동은 활발했으나, 여전히 통상관련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대외 수요에 대한 확신이 부족. 그러나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부양정책 강화에 따라 경기 회복이 빨라질 가능성

쌀값 상승률 고점 통과?



통상 관련 불확실성 잔존한 가운데 5월 수출은 감소전환



자료: 일본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MoF,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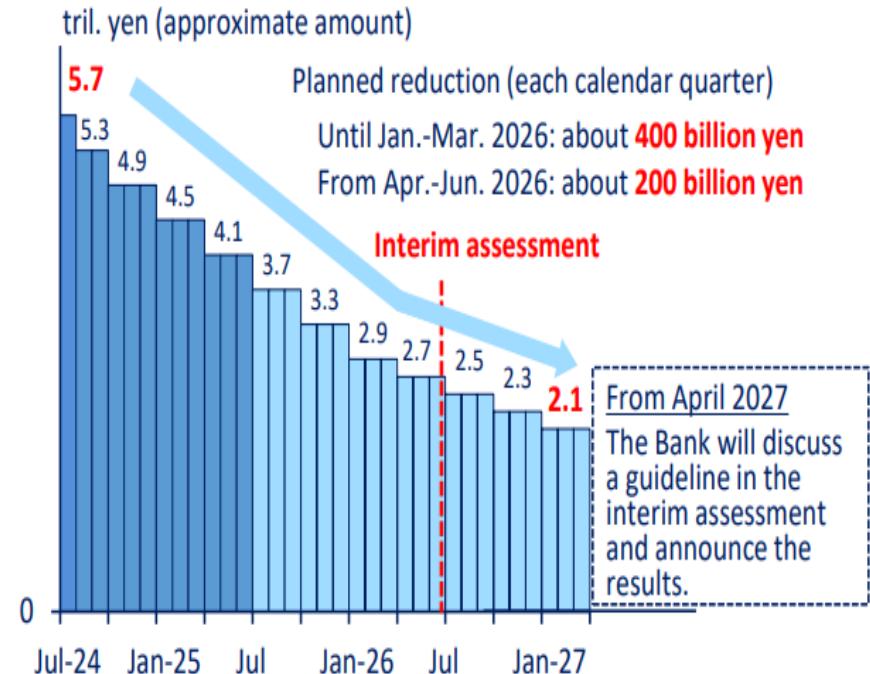
[정책] 대내외 불확실성

-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부채규모가 큰 편인 만큼 빠른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어려운 환경. BOJ는 QE 감액 속도조절('26년 4월부터 기존 4천 → 2천억엔으로 축소)로 가파른 시중금리 상승세 조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시중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
- 참의원 선거(7/20) 앞두고 이시바 정부 지지율 부진한 가운데, 6월 중 불거졌던 내각 불신임안은 일단 보류
- 한편 미국과의 협상은 쉽게 합의되지 못하는 모습. 일본은 다각도의 협상카드를 제안했으나, 트럼프는 자동차 25% 관세 부과 의지 여전

일본 시중금리 높은 수준 지속



일본은행 QE 감액 규모 축소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BOJ,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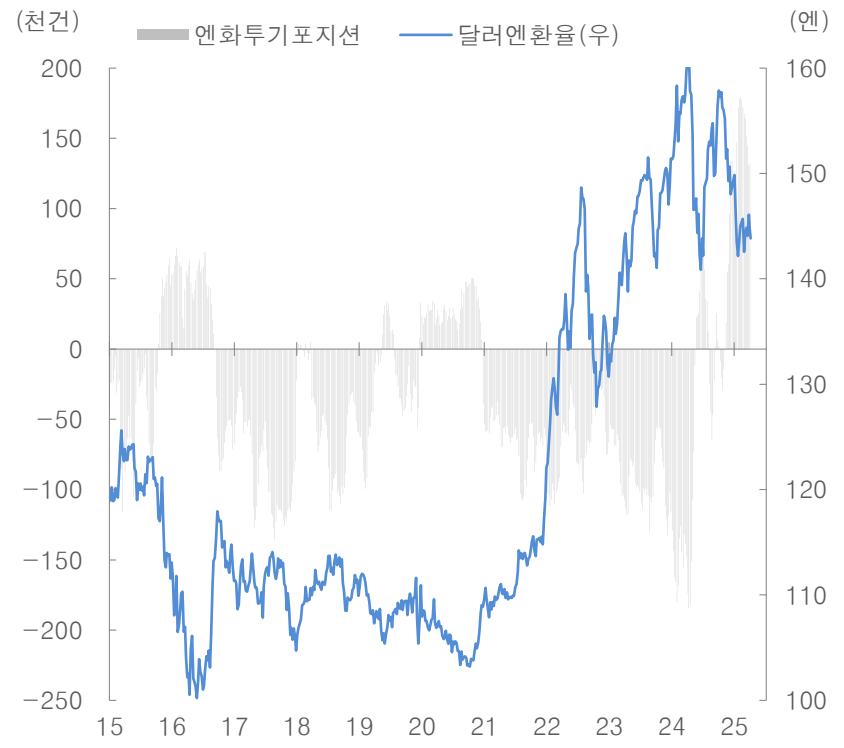
[센티/수급] 대내외 변수 따른 변동성 경계

- 일본 시중금리 여전히 높은 수준 지속하는 가운데, 달러엔 환율 하락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경계
- 7/9 무역협상 기한 전후 대외 달러약세압력 및 안전선호 심리 확산에 달러엔 환율 하락폭 확대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미국과 무역협상 과정에서 엔화 절상관련 논의 이뤄지지는 않는지 모니터링 필요
- 7/20 참의원 선거 전후 대내 정치 불확실성에 환율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내국인의 해외자산 투자 축소 경계



엔화 투기포지션



자료: BOJ,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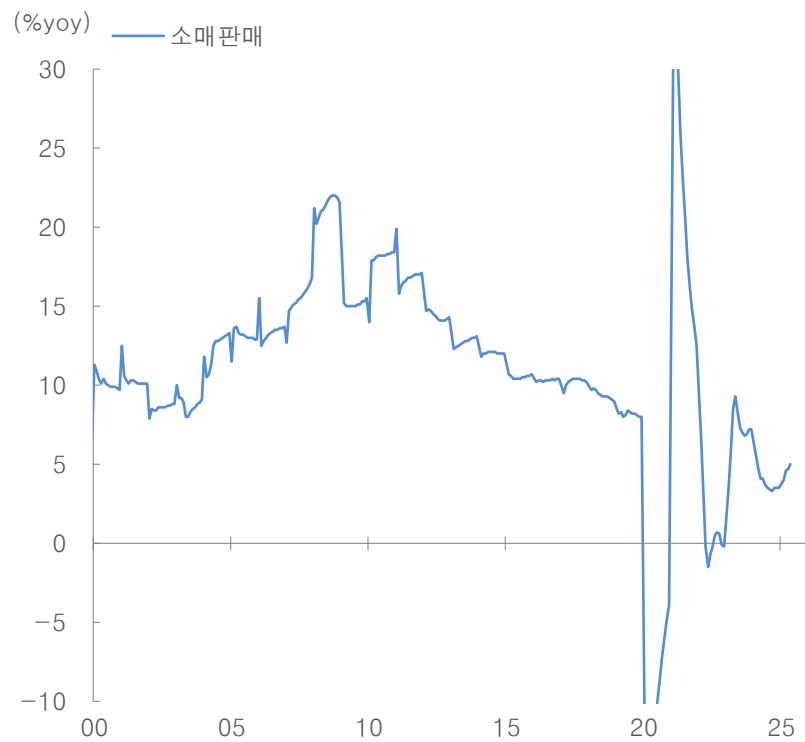
CNY: 의외로 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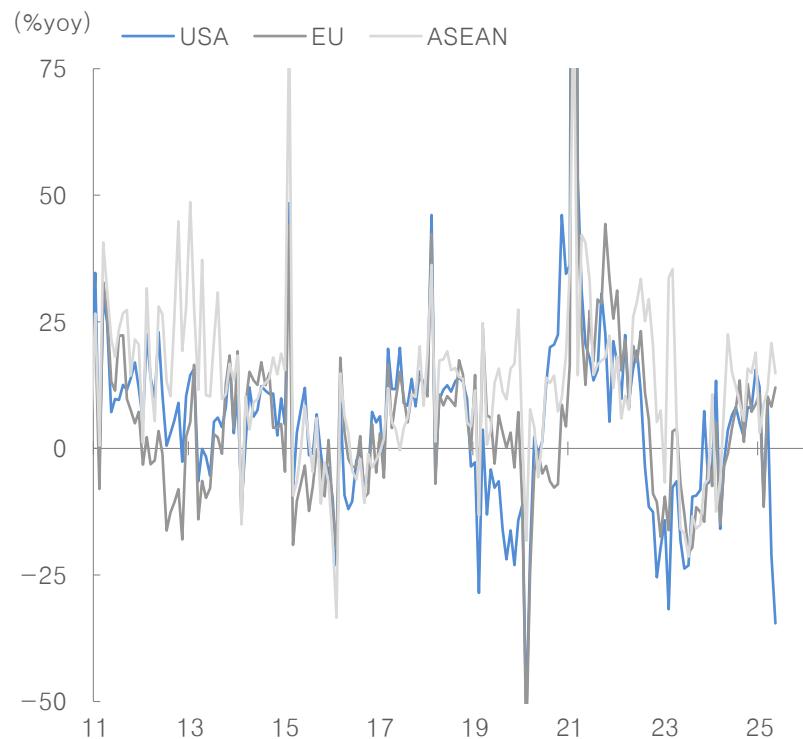
[펀더멘털] 좀처럼 오르지 않는 물가

- 소매판매는 이구환신 보조금 효과 가시화되며 내구재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 유지
- 그러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 내수 회복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 잔존
- 관세부과 본격화되며 대미수출은 최근 2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으나,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세율 합의한 만큼 수출 경기 일부 개선 가능

디플레이션 압력에도 소비증가세 지속



수출 경기 일부 개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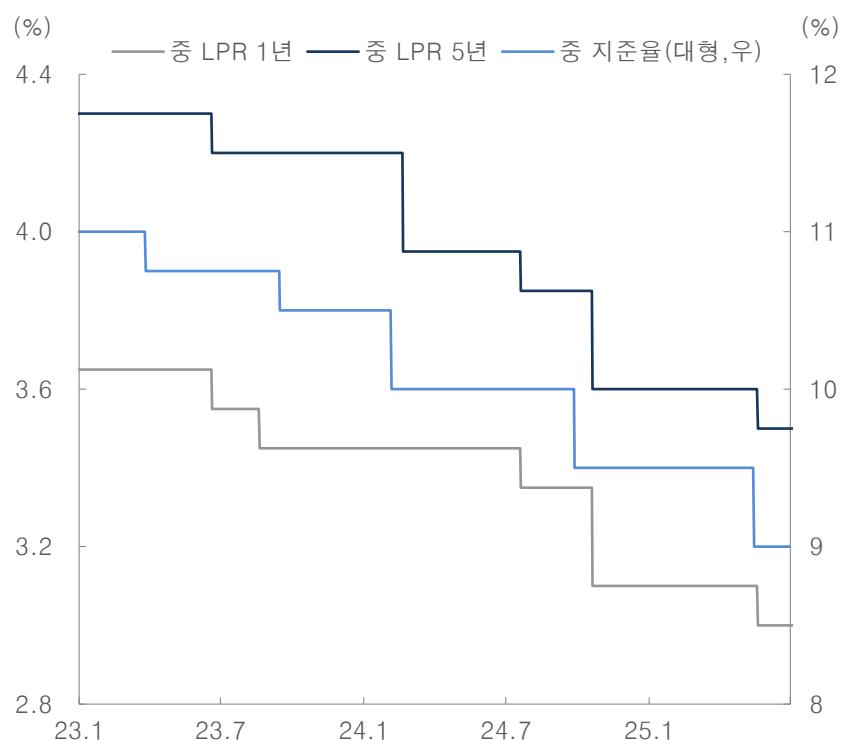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해관총서,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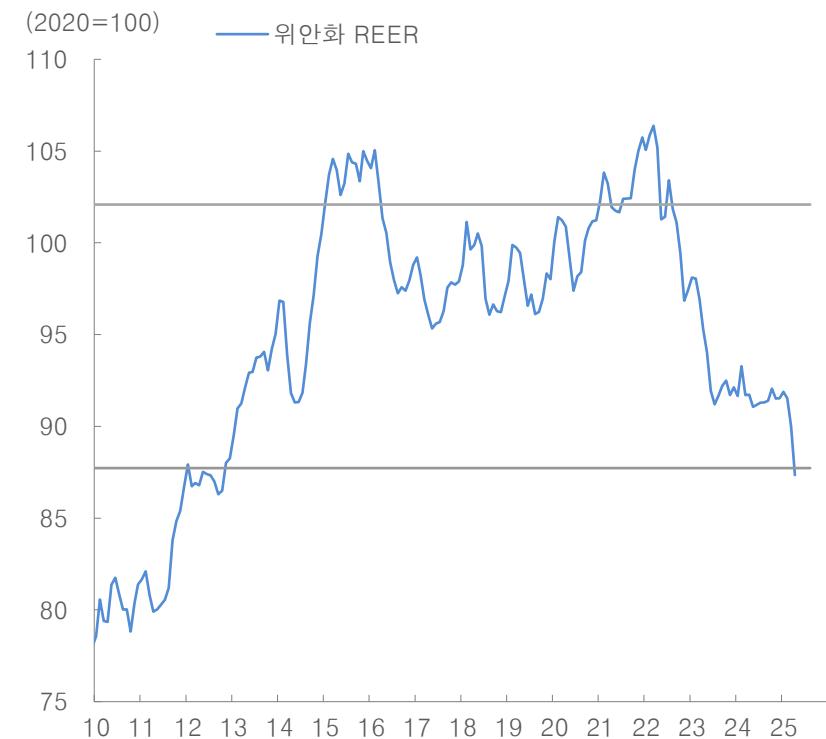
[정책] 위안화 강세 오히려 좋아

- 중국은 5월 초 미국과 관세율을 낮춘 이후, 6월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를 포함하여 비관세적 협의 또한 완료. 추가 협상 이어갈 계획
- 중국 내수 개선에도 위안화 강세가 필요한 만큼,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환율 관련 논의 이뤄지는지 모니터링 필요
- 내수확대와 함께 첨단산업 패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전망. 올해 말 15차 5개년 계획 논의 예정(내년 초 발표)

하반기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



중국 내수확대에도 필요한 위안화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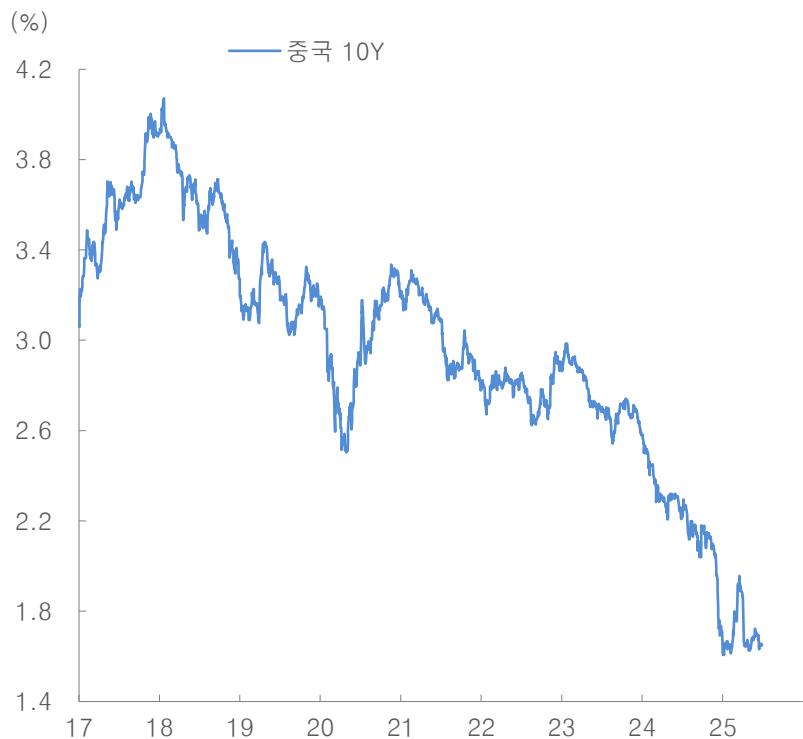
자료: PBoC, NF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BI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화색 선은 2010년 이후 평균 ±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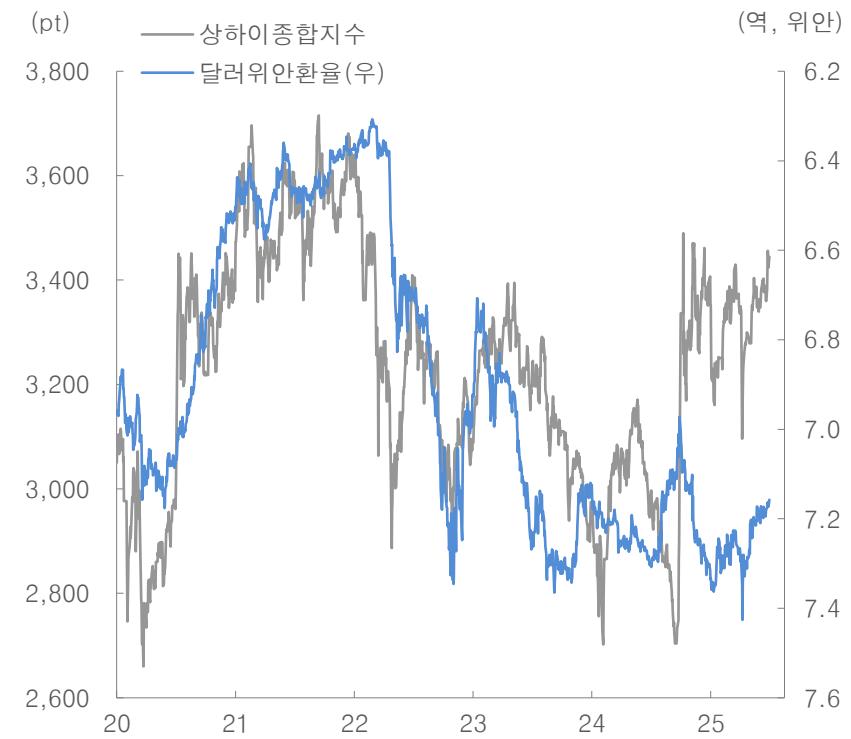
[센티/수급] 투자자금 추가 유입 가능할지

-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중국 실물경기에 국채 금리는 다시 하락 전환
- 최근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비미국 자산 투자심리 양호한 가운데, 미-중 갈등 관련 공포심리는 단기적으로 정점을 통과.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는지 모니터링 필요
- 미국과 추가 무역협상 과정에서 위안화 절상 관련 논의 이뤄질 경우 달러위안환율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가능

중국 국채 금리 다시 하락



투자 자금 추가 유입 가능?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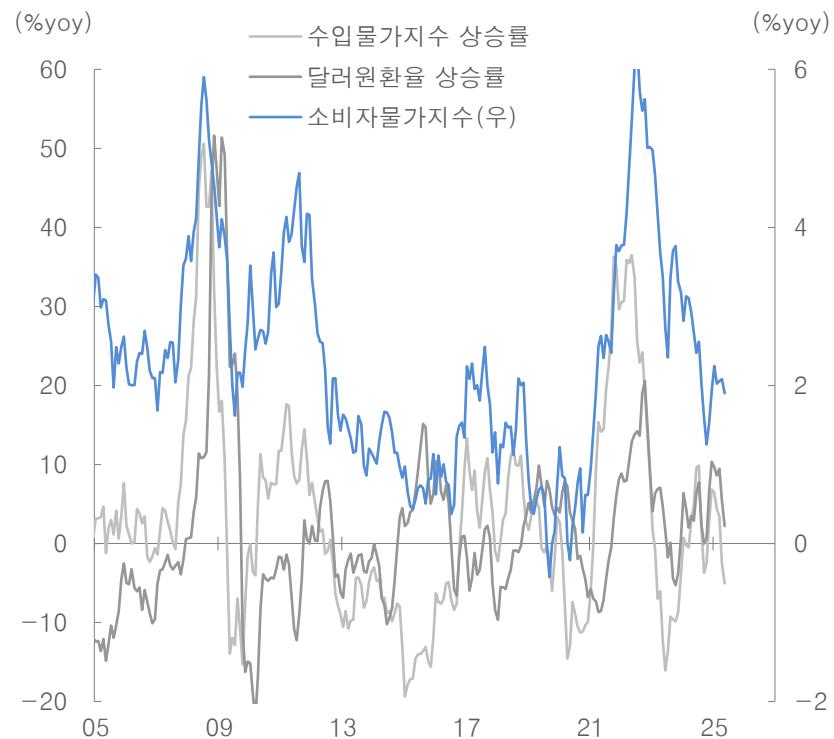
KRW: 간만에 강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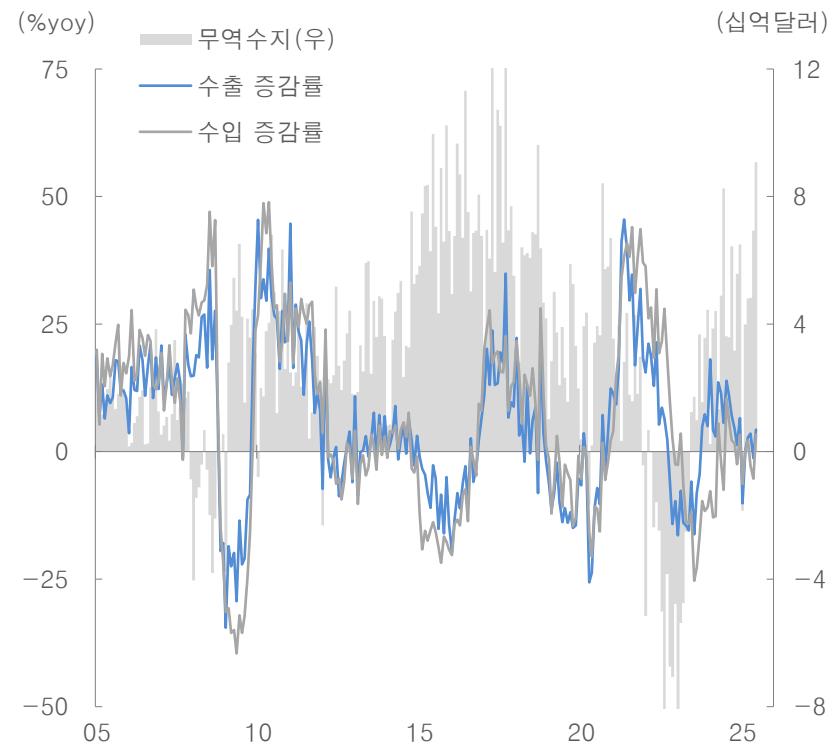
[펀더멘털] 내수 중심 경기 회복 가능성

- 6월 수출 전년대비 4.3% 증가하며 다시 플러스권 진입. 일평균 수출은 6.8% 증가하며 증가폭 확대. 통상 불확실성에 부진했던 수출 경기 일부 개선된 모습. 대미수출 역시 일평균 기준으로는 증가 전환, 아세안, EU 수출 증가세는 양호한 흐름 지속
- 물가상승률은 원화 강세, 에너지 가격 하락 등 수입물가 안정되며 하향 안정 지속 예상, 연내 추가 금리인하를 뒷받침
- 신정부 출범으로 소비심리 반등한 가운데, 과거 추이 미루어 보았을 때 당분간 억눌려있던 소비 증가세 다시 확대될 가능성

수입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



6월 수출 다시 증가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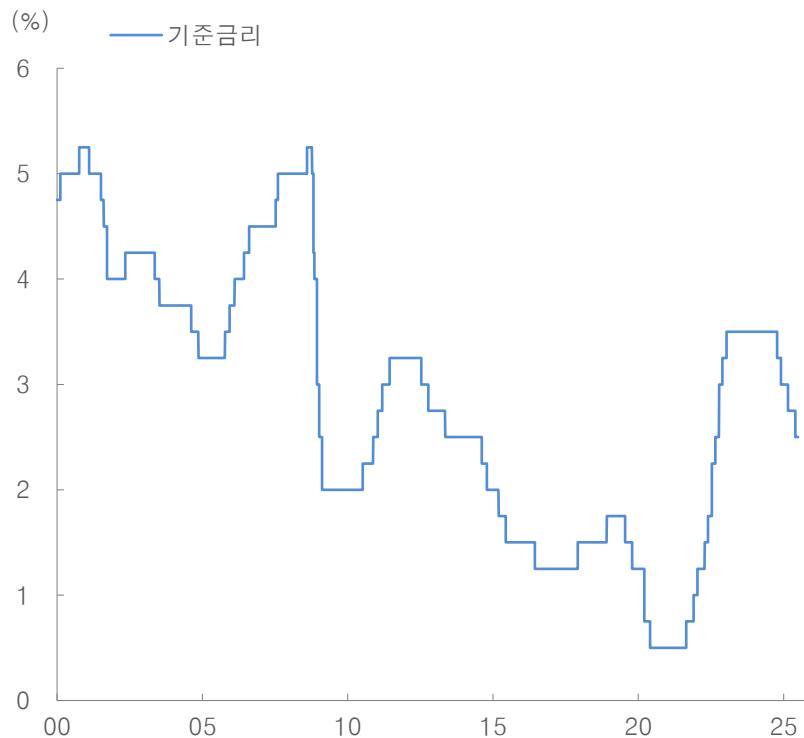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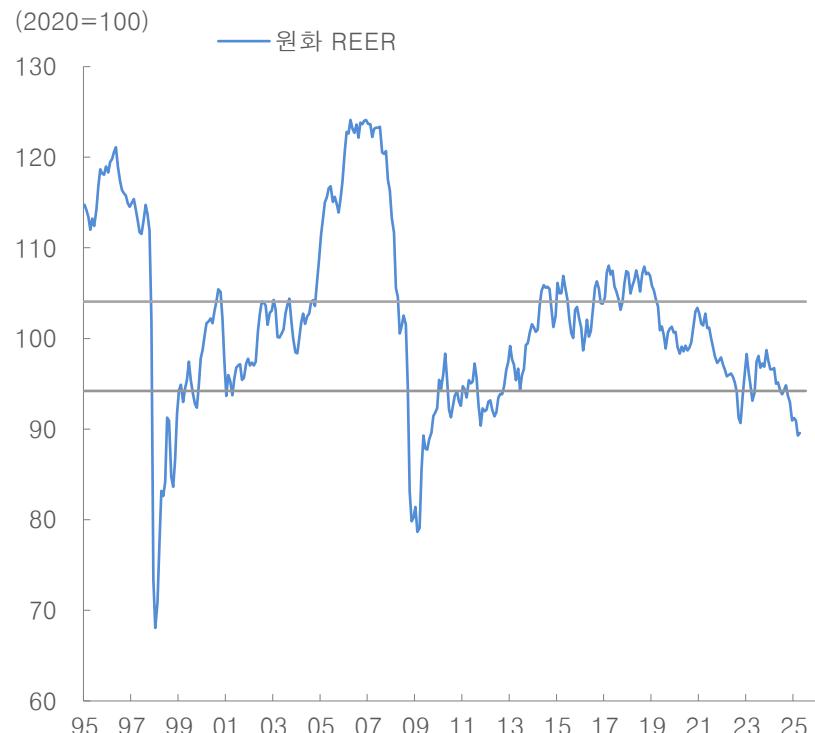
[정책] 경기 부양 효과 기대

- 통화 및 재정정책 공조 경기 부양 지속. 지난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인하 시사, 정부는 소비쿠폰 포함 20조원 규모 2차 추경 예산안 준비
- 7/9 무역협상 기한 전후로 한국-미국 간 무역협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협상패키지 내에 환율 논의도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통화정책 추가 완화 예상



미국과 협상에서 환율 논의 이뤄지는지 확인 필요



자료: BO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BI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화색 선은 2010년 이후 평균 ± 표준편차

[센티/수급] 간만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

- 한국-미국 간 직접적인 환율 논의 없더라도, 중국, 대만, 일본 등 경제구조가 비슷한 아시아 국가와 진행될 경우 원화도 연동될 여지
- 글로벌 유동성 확대되는 국면에서, 비미국 투자심리 대체로 양호. 특히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되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 7월 미중 갈등 우려 재부각되어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되거나, 미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될 경우 달러원 환율 하락폭 제한 가능하나 단기적으로 하락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은 제한적

외국인 자금 유입 추이



미국주식 보관금액 반등



자료: Quantwise,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Seibro,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패권의 역사와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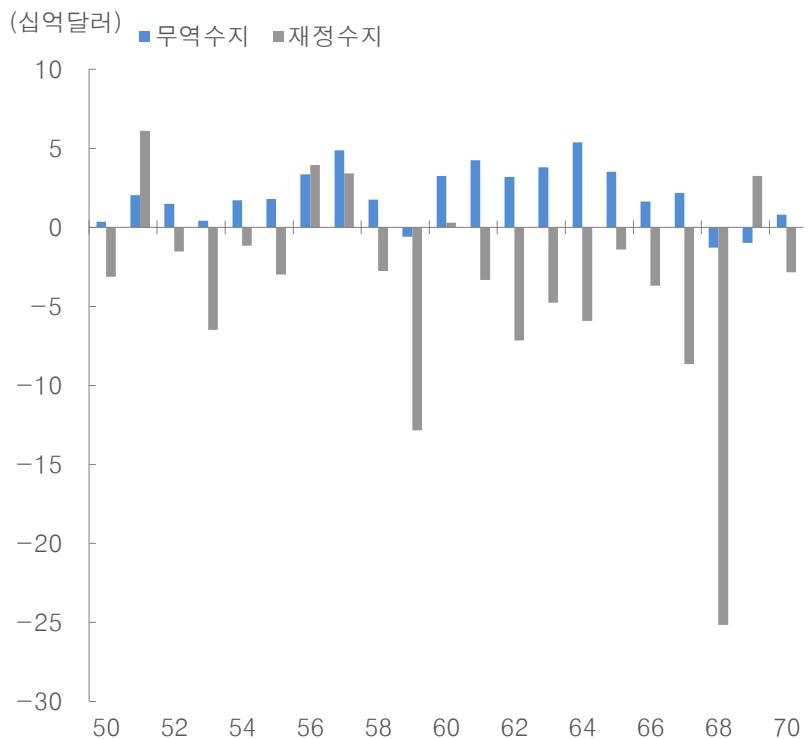
달러 패권의 역사 1) 브레튼우즈 체제와 닉슨 쇼크

-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종료와 함께, 미국은 금 1온스당 35달러를 고정하고, 다른 국가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브레튼우즈체제 시작. 미국이 금 75%를 차지하는 초강대국이었던 만큼, 금 대리자 역할을 하며 권력 차지
- 그러나 1960년대 미국은 무역적자 및 베트남전 지출로 금보다 달러를 더 많이 찍어냄, 1971년 금태환 정지 선언과 함께 닉슨쇼크 발생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



1960년대 무역적자, 재정적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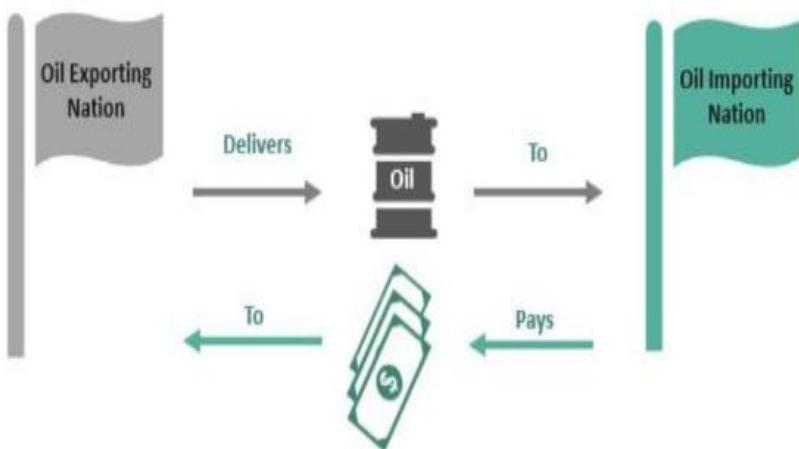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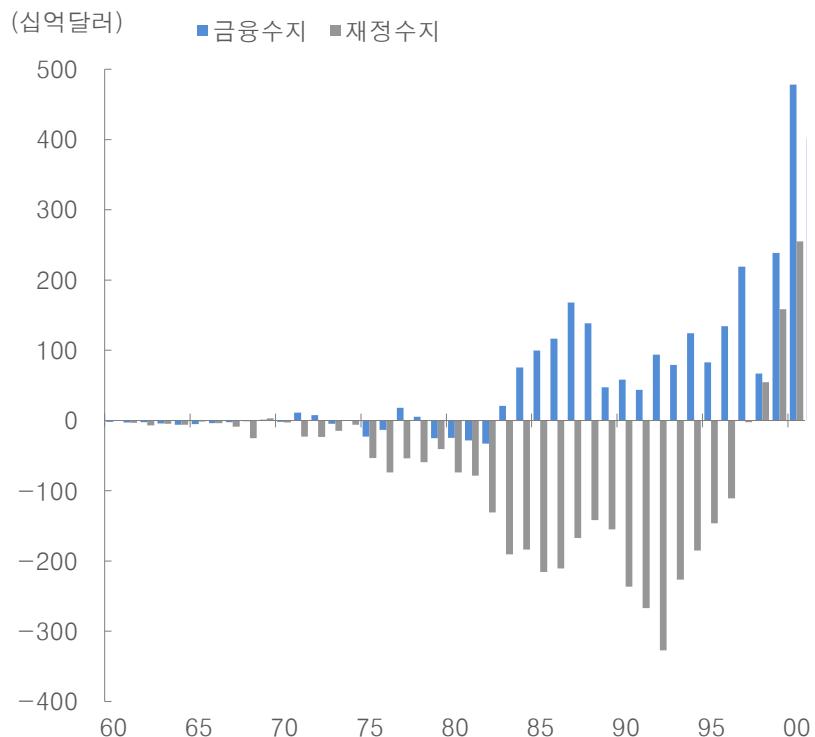
달러 패권의 역사 2) 페트로 달러

- 1970년대 초 미국은 사우디와 비공식 협정에서 국제 원유 거래 표준 결제를 달러로 할 것을 결정. 사우디 외 OPEC 산유국에도 동일하게 적용. 산유국이 번 달러는 다시 미국 금융시장으로 유입, 미국을 금융산업의 강자로 만듦
- 그러나 21세기 들어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통화로 석유 결제를 추진하기 시작, 이란은 달러를 우회하는 거래 방식을 시도하는 등 탈달러화 조짐 나타남

페트로 달러



1970년대 이후 미국으로 자금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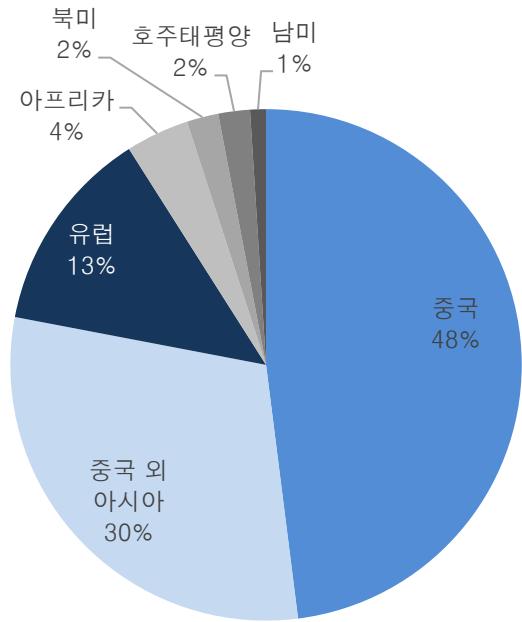
자료: WallStreetMojo,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 패권의 역사 3)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 금태환제와 오일머니가 달러의 실물적 기반을 형성했다면, 오늘날 달러 패권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금융 인프라
- 미국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자금 차단을 명분으로 SWIFT 시스템을 감시. 2012년 이란 핵개발 의혹 제재로 SWIFT에서 퇴출, 2022년 러-우 전쟁이후 러시아 주요 은행 역시 퇴출시키는 등 제재 수단으로 활용
-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러시아는 SPFS, 중국은 CIPS를 개발, 유럽 또한 INSTEX 대체 시스템 시도, 다만 아직 SWIFT 대체 불가

SWIFT에 도전하는 중국 CIPS, 사용국가 비중



SWIFT에 도전하는 러시아 SPF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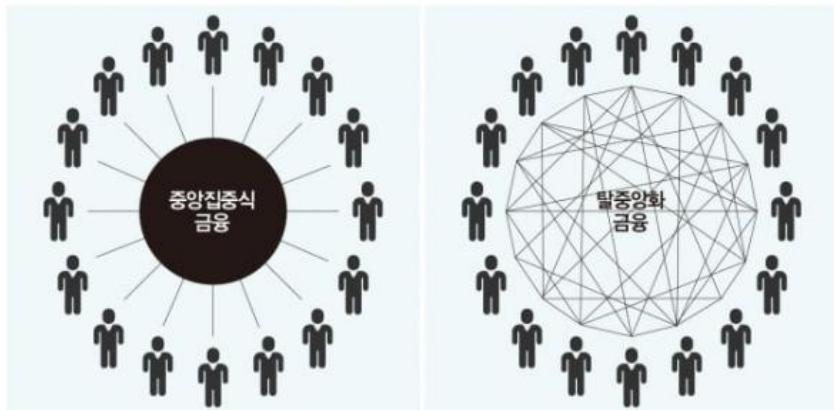
자료: BOFI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2021년 기준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SWIFT, cyberf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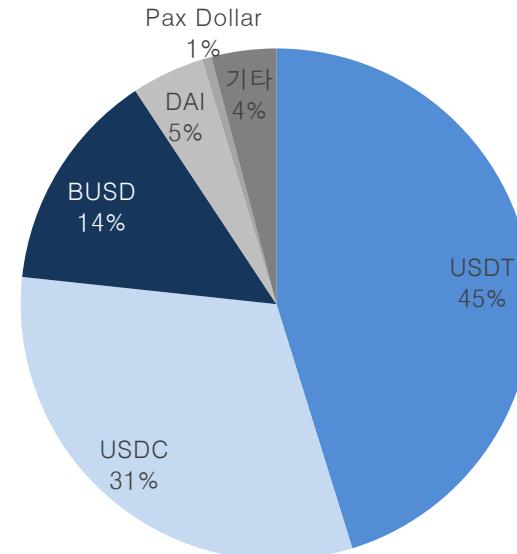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 탈중앙화된 결제망은 기존 금융망을 거치지 않고 세계 연결 가능.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 가격은 실물화폐에 고정.
- USDT(테더)와 USDC(서클)는 달러에 1:1로 연동. 은행, 국경, 시간 제약 없이 전세계로 송금 가능한 점이 특징. 경제제재를 받거나 외환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회피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탈중앙화 금융



가상자산 중 스테이블 코인 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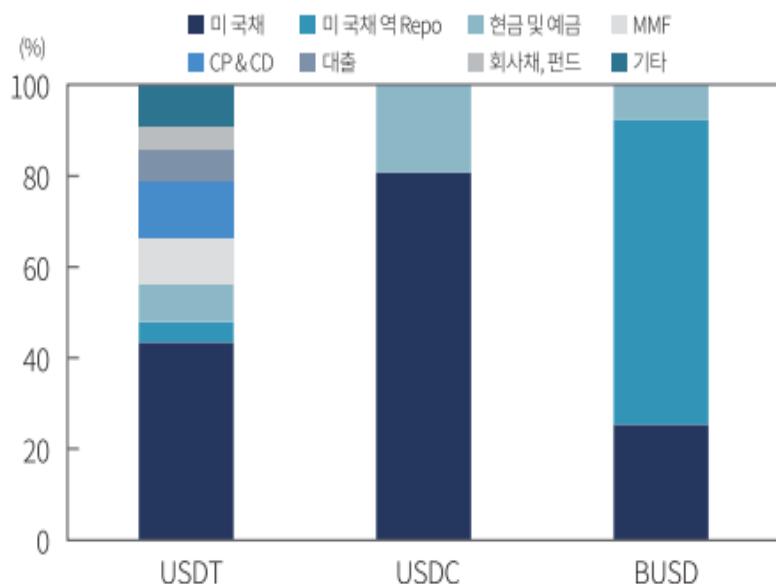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 한경,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료: CoinMarketCap,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2022년 9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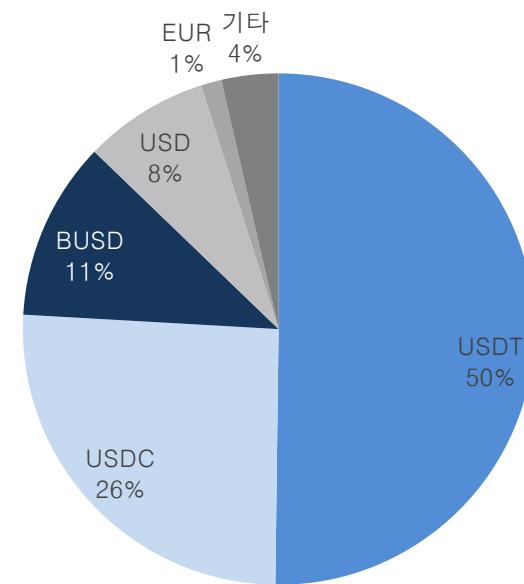
이 또한 패권 유지를 위함

- 디지털화폐 시대는 데이터를 누가 통제하느냐가 패권의 기준이 될 것. 중국은 CBDC인 디지털위안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럽은 MiCA 규제를 통해 유로 스테이블 코인 기반 만드는 시도 중
-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혁신을 이끌기 위해 미국 내 지급결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하는 법안 ‘지니어스법(GENIUS Act)’ 상원에서 통과. 사실상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시장이 커질 수록 달러의 영향력이 디지털 세계로 확장될 전망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 구성



가상자산의 결제 수단별 비중



자료: Tether, Circle, Paxos, 자본시장연구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2022년 기준

자료: The Block,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2022년 8월 기준

'지니어스 법(GENIUS Act)' 주요 내용

- 최근 지니어스 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GENIUS) 상원 통과, 하원 심의 진행 중. 법안 내용 감안할 때, 결국 규제를 통해 사용을 제한하기 보다 1:1 페깅 통해 달러수요를 높이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
-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거래에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미국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주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특히 준비금을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와 같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미 달러 및 국채 수요를 뒷받침

지니어스 법안 상원 통과



Stablecoin Legislation: An Overview of S. 1582, GENIUS Act of 2025

Updated May 19, 2025

On May 8, the Senate voted not to invoke cloture to proceed to S. 1582, the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of 2025, or GENIUS Act. An overview of S. 919, an earlier version of this bill, may be found [here](#). An overview of key policy issues can be found [here](#). The bill would establish a regime to regulate stablecoins, as described below.

지니어스 법안 주요 내용

	내용
제도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운영 방식 제도화
발행 요건 강화	정부 규제기관(예금보험 가입은행, 연방 정부 인가 비은행사 등)으로부터 라이선스 취득 필요 규제 주체: 은행계 – 연준, 비은행계 – OCC
준비금	100% 준비금 보유해야 하며,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와 같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해야 함
투명성 강화	매월 준비금 내역 공개, 일정규모(시총 500억달러) 이상은 연간 외부 회계 감사 필요
고객 보호	인가된 수탁자만 스테이블 코인 보유 가능 파산 시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청구권이 최우선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주원)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